

“금오대선사 선풍 진작에 노력할 터”

보은 법주사 주지에 정도 스님 선출

보은 법주사 주지에 종회의원 정도 스님이 선출됐다. 법주사는 3월 7일 산중총회를 열고 선거인단 251명 중 142표로 정도 스님(사진)을 주지로 선출했다.



노덕현 기자

정도 스님은 선출 후 “법주사는 부휴(浮休)스님 법맥인 벽암(碧巖) 각성(覺性) 스님 등이 선풍을 드날린 가람으로 근·현대 선풍 진작의 중흥조인 경하, 만공스님의 덕승 문중 법맥을 이은 태전 금오 스님께서 주석하시며 선풍을 진작시킨 도량”이라며 “법주사 주지로 나선 이유는 애오라지 금오스님의 선풍을 진작하는 불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라고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특히 법주사 대중 스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수행자가 없는 스님들을 위해 30여개 방사를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교구장 무료 다비의 제도화도 공약으로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금오 대선사 가르침

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물량적인 보여주기식 불사보다는 사부대중의 복지와 수행에 초점을 맞추겠다. 법주사를 수행도량으로 일신하는데 이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76년과 1979년 각각 법주사와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창풍사 주지를 역임했다. 제14·15대·16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서북단 백령도서 태고종 영산재 봉행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실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서북단 백령도서 통일일을 염원하는 영산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서 눈길을 끈다.

태고종 신촌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선암)는 4월 18~19일까지 1박 2일간 백령도서 '2016년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영산대제'를 연다.

영산재보존회원 등 300여 명 규모가 참석할 이번 대제는 2002년 6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서 희생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은 “영산재보존회에서는 해마다 세계평화 및 남북통

일을 발원하는 영산재를 유서깊고 의미 있는 장소를 택해 개최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 독도 시연에 이어 우리나라 서북단 백령도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된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서 범화경을 설한 모습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법회다. 특히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인의 문화로 발돋움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국대 이사 교체 본격화

종관위 승원·정덕, 일관·환풍, 자광·성무 스님 복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삼해, 이하 종관위)는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3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일과 4일 사표를 제출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보광 스님 후임으로 승원 스님과 정덕 스님을, 이사 일면 스님 후임으로 일관 스님과 환풍 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다.

또한 종관위는 감사 합결 스님 후임으로 前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도견 스님을 추천

했다. 이에 앞서 열린 3월 7일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3일 사퇴한 호성 스님 후임으로 前 군중특별교구장 자광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성무 스님을 복수 추천했다.

한편, 복수 추천된 스님들은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개원하는 제205차 중앙종회 회의 이후, 동국대 이사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신성민 기자

“강제수용 한전부지, 봉은사로 반환하라”

한전부지 환수 운동 불교계 본격 돌입

3월 23일 시청광장서 집회 예정 봉은사는 2월 24일부터 시위 시작 전국사찰, 현수막 게재 등 동조결의 교구본사주지협 “진상위도 꾸러야”



3월 10일 서울시장과의 면담 요청이 거절되자 환수위 스님들이 시청 앞에서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군사 정권 시절 법적 효력 없이 강제수용된 한전 부지는 봉은사가 원 소유자이므로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 전통 문화 보전과 진흥의 도량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불교계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한전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3월 10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한전부지의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3월 23일 서울시장 앞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열 예정이다. 또 직할교구 360여개 사찰과 교구본사주지회의 등도 환수 결의문을 내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수 촉구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공동위원장

지현·원명 등)는 3월 10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한전부지 환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허가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총무원 집행부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및 봉은사 스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면담이 거절되자 이들은 “서울시가 한전부지 매각 후 공공개발부담금 1조 7400억원을 받기로 하고 신속히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신청한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는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직할

교구 총회에서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에는 360여개 사찰이 소속돼있다. 이들 사찰 주지 스님들과 신도들은 3월 23일 오후 2시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항의집회 참석과 함께 항의 현수막을 사찰에 게시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한전부지 환수는 봉은사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찰의 권리와 종단의 자존과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부당하게 수용당한 토지가 한국전력을 거쳐 최근에 현대자동차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려가겠다”고 말했다.

3월 8일에는 전국 2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의체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남)도 회의를 열고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수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서 주지 스님들은 “정부가 상공부 청사 이전 명분으로 봉은사 토지 10만여 평을 할당에 수용한 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더니, 이제는 민간회사에 매각했다”며 “정부 수용 후 15년간 아무런 사용도 없다가 1984년 한전이 사육을 신청했다. 서울시도 공공개발부담금 1조 7400억원을 받기로 하고 전례없이 신속히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인허가의 즉각적인 종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봉은사 소유토지 강제수용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한편, 현재 봉은사 신도들은 2월 24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서울시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피켓시위는 환수위 집회가 열리는 3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봉은사 신도회 측은 “한전부지는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정부가 강탈한 토지”라며 “원 소유자인 봉은사를 환원하고, 이 같은 요구가 목살된다면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선학원 내부로 확산되는 법인관리법 갈등

법인등록을 놓고 벌어진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선학원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인등록을 찬성하는 선학원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과 선학원 이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미모 운영위원인 서울 보광사 현종 스님은 3월 8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금품수수 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 보광사 현종 스님은 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2년 2월 초 정명사서 법진 스님을 만난 뒤 보광사 신도회장이 보광사 분원장 임명을 위해 두차례 걸쳐 1억원을 법진 스님의 정명사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현종 스님은 이날 “2012년 2월 초 법진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묻는 신도회장에게 법진 스님이 적절히 해결될 것이라 말하며 여러번에 걸쳐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언급했다. 이에 신도회장이 분원장 임명을 위해 2012년 2월 5000만원, 3월 5000만원 포함 1억원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야기되는 소속사찰 신도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절하지 않다. 재단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받았다면 정상 참여가 가능하지만 당시의 사실사람인 정명사 통장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법진 스님은 창건주와 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보광사에는 규정과 절차도 무시하고 사고사찰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왔다. 이 배후에는 사적 이익 확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 측은 3월 10일 선학원 재단 사무실에서 전국법행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선학원 전국법행단은 이날 “정명사 무선전 건리불사 중 일방적으로 사전 일인반구 언월도 없이 사찰 불사금 통장에 1억원을 입금해 놓고 이를 돌려주려는

것마저 순수한 불사금이라고 거부하고 회피했다”며 “이사장 법진 스님이 보광사 신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본인의 사실사람 불사금으로 유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고 반박했다.

전국법행단 일동은 “선미모는 자칭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공조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사태의 원인인 법인관리법 폐지를 위해 재단과 함께 행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과 조계종

선미모, 이사장 법진 스님 금품수수 주장 선학원 “일방적 입금일뿐 돌려주려 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선학원과 조계종단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1차 화해원탁회의’는 선학원 측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로 열렸다.

회의에서 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은 먼저 선학원 측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스님은 “처음부터 각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갈게 보고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불교문화단체 등록 사업 공모 발표

문화부, 3월 25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육성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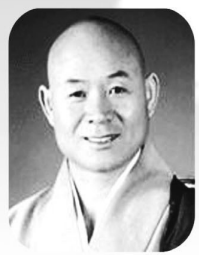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중단의 종지와 종풍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련 단체 △창단한지 2년 이상 경과된 문화관련 단체 △중단 법인관리 및 불교문화진흥법에 따른 중단등록 법인단체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및 전시출품(창작활동)의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동참하려면 신청공문, 불교문화단체 등록신청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업계획서, 임원 인적사항, 사업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오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총무원 문화부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접수된 단체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등록신청서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될 수 있다. (02)2011-1779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 사 과 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문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2016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 팩스: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